



IMF의 韓 부채 전망치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

- IMF 전망 대비 최종 일반정부 부채 (D2) 실적이 낮은 경우가 다수
- 최근 IMF는 한국의 재정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('25.11월 연례협의)

<보도내용>

□ 2026.4.16.(목) 연합뉴스, TV조선, 매일경제 등 IMF Fiscal Monitor '26.4월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.

“IMF, 韓·벨기에 콕 짚어 나랏빚 경고…GDP대비 전망치는 하향”(연합뉴스)

“IMF, 한국 콕 짚어 나랏빚 경고…‘상당한 증가’”(TV조선)

“벨기에와 한국, 나랏빚 과속 주의…IMF가 콕 짚어 경고한 두 나라”(매일경제)

<정부 입장>

□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·재정여건, 전망시점, 정책대응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○ IMF가 부채 전망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(rolling plan)으로 정책대응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,

- 과거 IMF는 '23년 일반정부 부채(D2) 비율을 60% 넘게 전망(61.0% 전망, '21.4월)하였으나, 최종 실적은 50.5%로 차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.

<과거 한국 부채비율(D2) 60% 초과 전망 사례-실적 비교(IMF)>

(단위: GDP%)			'20	'21	'22	'23	'24	'25
전 망	'21	10월호	-	51.3%	55.1%	58.5%	61.5%	64.2%
		4월호	-	53.2%	57.2%	61.0%	64.4%	67.3%
	'20	10월호	48.4%	52.2%	55.8%	59.3%	62.3%	65.0%
실 적			45.9%	48.0%	49.8%	50.5%	49.7%	-

○ 또한, 성장률 제고 등 정책대응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된 국가의 사례도 있습니다.

* 일반정부 부채(D2) 개선 사례('18→'23, IMF Fiscal Monitor, GDP%):
 (네덜란드) 51.6→45.9 (스웨덴) 39.9→31.8 (포르투갈) 121.1→97.7 (그리스) 189.6→165.2

□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IMF 선진국, G20 선진국, G7, EU 등 IMF가 제시하는 주요 선진국 그룹과 비교시 낮은 수준입니다.

IMF Fiscal Monitor('26.4)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-
 Advanced Economies(38개국):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, 2017-31 中 일부 발췌

(단위: GDP대비 %)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	'31년
Average	108.2	109.5	111.0	112.3	113.6	115.3
· Euro Area	87.8	88.5	88.7	89.2	89.5	89.9
· G7	123.7	125.4	127.4	129.3	131.1	132.9
· G20 Advanced	118.9	120.5	122.4	124.2	125.9	127.5
Korea	54.4	56.6	58.5	60.1	61.7	63.1

○ 아울러, IMF는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.

* 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('25.11) : "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,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 over the forecast period..."

□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GDP 대비 부채비율의 높고 낮음 보다는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.

○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, 재정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경제의 성장 기반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찬익 (jky820@korea.kr)